

중부권 R&D융복합 집적지구 추진

주대영 산업연구원

(검토의견)

1. 사업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정책과의 부합성이 모호

○ 산업단지조성 자금과 R&D자금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법제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, 그 제도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임.

- 개인적인 생각인데, 양쪽을 포함하는 합당한 법제도는 아직 없는 것 같음.
- 예를 들어 국토부의 “도시첨단산업단지” 조성은 기업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.
- 국과위 예타의 경우 단지조성이 주류가 되면 통과하기는 어렵고, R&D자금이 최소 60~70%이상 돼야 검토대상이 될 것임.

2. 예타 준비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예타 평가항목을 파악하여 그 항목에 맞도록 정책기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예를 들어 예타 가기 위해서는 행당부처의 선정기준에 합당해야며, 그 후 국과위에서 통상 “기술성 평가”를 통과한 후 “경제성 평가”를 실시하는데, 대부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더욱 집중해야 함.
- 참고로 2013년 예타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기술성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.

<에타의 기술성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>

평가항목	평가지표
기술개발의 필요성	1. 정책적 부합성 2. 사회/경제적 필요성 3. 기술적 필요성
기술개발의 시급성	1. 사업추진의 시의 적절성 2. 국내 사업여건의 성숙도
국고지원의 적합성	1. 사업의 혁신성 2. 사업의 공공성 3. 국고지원의 효율성
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	1. 사업목적/ 지원대상/ 기술분야/ 추진방법의 차별성 2.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의 타당성
사업계획의 구체성	1. 사업계획의 충실성 2. 사업목표의 적절성 3.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4. 사업예산/인력/시설 운용계획의 적절성 5. 사업관리계획의 적절성

자료 : 국과위